지역 소식통

부안군, 2024년 겨울철 동파방지대책 적극 추진

부안군은 올해 평년 대비 기후변화가 클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한파를 대비해 동파 예방 홍보에 노력을 기하고 겨울철 상수도시설 동파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부안군은 각 가정이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겨울철 상수도 동파 예방법'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군 홈페이지, 부안톡톡,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홍보, 공동주택 등에 동파 방지용 보온재를 지급계획임을 말했다.

상수도시설 동파 사고의 주요 원인은 개별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로 발생하며, 동파 예방을 위해 계량기함 내부에 헌 옷이나 담요 등으로 채우고, 찬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감싸서 방지할 수 있다.

장시간 집을 비우거나 한파가 지속될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두어 물이 흐르게 하여 수도관이나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정읍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동초등학교에 '정지선 준수 시스템'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새롭게 설치했다.

이번 스마트 시스템 도입은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지선 준수 시스템은 차량이 정지선을 위반할 경우 차량 번호와 이미지를 전광판에 표출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정지선을 지키도록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행자 감지 카메라와 연동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도 함께 설치됐다. 이 장치는 어린이나 노약자와 같은 교통취약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음성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내년 1조1588억 예산안 편성

정읍시, 시민 삶의 질 향상 중점 · 올해보다 474억원 증가… 심의 거쳐 12월 16일 확정

정읍시가 2025년도 예산안 총 1조 1588억원을 정읍시의회에 제출하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 활성화와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보다 4.3%(474억)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1조 721억원, 특별회계는 867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069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6.5% 증가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471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82억원 증가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4156억 원이다.

시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경제 활성화 △문화·관광·교육도시 조성 △미래산업 기반 강화 △농촌 상생 △복지 서비스 증진 △도시 인프라 확충 등 주요 부문에 집중 배분했다. 소상공인 기본소득 지원에 29억원, 샘고을 시장 시설 현대화와 상권 활성화에 총 89억 7000만원, 정읍사랑상품권 발행에 800억원을 배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문화와 관광을 위한 투자로는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에 100억원, 정읍천 벽천분수와 야간경관 조성에 24억원이 투입된다.

정읍문화유산 방문자센터와 테마공간 조성 등에도 291억원을 배정해 정읍을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미래산업 육성에도 투자한다. 시는 동물용 의약품 개발과 농축산용 미생물 인프라 구축 등 첨단 바이오 산업을 위해 총 270억원을 편성해 지역 혁신을 꾀하며, 청소년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사업 등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농촌 상생을 위해서는 지황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에 30억원을 배정하고,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255억원을 투입해 농촌 특화산업 육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할 예정이다.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영유아 육아수당 지원액을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3월에는 어린이 전용 병동과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를 정식 운영해 소아 진료 편의를 개선한다. 또한, 2026년까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 출산부터 보육까지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단호박 폭염피해 '농업재해' 인정

단일품목 특정지역 재해인정 이례적… 재난지원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은 8~9월 폭염으로 인한 단호박 착과불량 피해를 농식품부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농림부와 군 합동 현장검증을 통해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해명은 '8~9월 폭염으로 인한 전북 고창 단호박 피해'로 특정지역에서 단일품목으로 농업재해를 인정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고창 가을단호박은 8월 정식 후 9월 수정을 거쳐 11월 중순에 수확한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염으로 9월 수정기에 단호박의 화분발아 부족과 낙화, 고온에 의한 수정벌 활동저하로 인해 전년 대비 90% 이상 수정불량이 발생했다.

수확할 것이 1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설단호박 농가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사에 피해접수를 하였으나, 보험 약관에 기상특보시 정식작물은 손해배상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아, 단호박 재배 130여 농가는 행정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군에서는 발 빠르게 현장 조사를 통해 전북도와 긴밀히 협업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조하여 농림부의 농업재해로 인정받게 됐다.

민선 8기는 공약사업으로 농업재해보험료 군비 지원을 확대해 2022년 농가 자부담 20%에서 올해 10%의 자부담만으로 가입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는 전북 도내 14개 시군비 지원액 중 가장 많은 예산이다.

또한 지난해 8월 도내 두 번째로 고창군 농업재해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국비 지원서 소외되는 소규모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737명에 2억5000만원 지원하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두례 부안군의원, "지역행사 추진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정책 도입 강조

부안군의회 김두례 의원은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행사 추진시 다회용기 사용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김두례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리 건강과 자연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순창군 등 타 지자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정책을 도입한 사례를 소개하며, 부안군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시하며 다회용기의 필요성을 알리는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일회용기보다 경제적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인식을 확산, 더불어 다회용기 대여와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군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두례 의원은 다회용기 사용이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과 부안군의 친환경 도시 이미지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군수와 공직자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이 2024년 고창군 관광사진 공모전에 참가한 308점의 작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세계유산도시 고창, 관광사진 공모 선정

참가 작품 308점 중 수상작 61점 선정 총 상금 1150만원

고창군이 2024년 고창군 관광사진 공모전에 참가한 308점의 작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고창군 관광사진 공모전은 10월 한달간 고창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가지 보물, 문화유산, 관광지, 축제, 행사 등을 주제로 한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창성곽(이정원作)'이 전형적인 구도와는 다른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고창읍성의 모습을 담아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으며 금상으로 선정됐다.

이어 고창 청보리밭 축제의 흥겨움을 주제로 한 '고창축제(이정순作)'와 세계지질공원의 주요 명소인 병바위의 독특한 모습을 주제로 한 '형상(이상오作)' 은상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동상 3점, 가작 5점, 입선 50점의 작품이 선정되어 총 61점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오는 12월 6일 수상작을 대상,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상은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 박현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고창지부장이 진행할 예정이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부상으로 금상(200만원)/은상(각 100만원)/동상(각 50만원)/가작(각 20만원)/입선(각 10만원) 총 1,15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오미숙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고창의 세계유산 7가지 보물과, 고창군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방의회 위상 제고·독립성 강화'

부안군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결

부안군의회는 12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를 위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김원진 의원의 제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채택되었으며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1년 이후 지방의회가 행정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현재 법적 한계로 충분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보장되어야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 대의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안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하여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